

# 화장품생산기업 수출 지원성과 '톡톡'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바이오뷰티기술 지역업체 이전... 중남미·중국 등에 제품 수출

전주시가 개발한 바이오뷰티기술(바이오기술·뷰티산업)이 지역 업체에 기술 이전되면서 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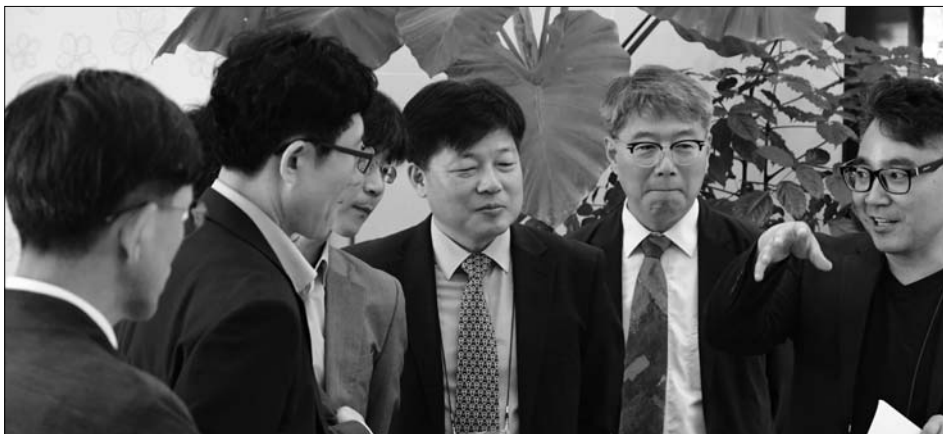
17일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따르면 바이오뷰티개발센터 구축 사업과 R&D 기업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전주시 관내 뷰티기업인 (주)바이허브, (주)휴먼피아코스텍, 농업회사법인(주)이더(주) 등 지역기업의 수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원의 기업지원 사업 대상인 (주)바이허브는 워터 파슬리 카밍 슬리퍼팩을 생산해 지난 6월 미국의 뷰티 유통회사와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최근 중남미 페루의 식약청에서 제품 등록 허가를 받아 중남미 진출도 앞두고 있다.

또한, 생키유마스크팩을 생산하는 어의당(주)은 중국 소핑몰 업체에 런칭에 성공, 현재 화장품 5종세트와 마스크팩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

(주)휴먼피아코스텍은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레드푸드리팩 마스크팩' 제품의 일본수출을 위해 오는 8월 중 (주)월드뷰브에 선적기로 계약을



전주시가 개발한 바이오뷰티기술(바이오기술·뷰티산업)이 지역 업체에 기술 이전되면서 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연구원 바이오뷰티개발센터는 앞으로 뷰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꾸준히 실시, 뷰티기업이 국내 경쟁력은 물론 해외 수출 확대에 일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문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업지원 사업에 적

극 반영할 방침이다.

유강열 연구원장은 "바이오뷰티개발센터 출범 이후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내 대단히 기쁘다"며 "그러나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사후지원 및 추가적인 기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전주시 관내 뷰티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러 "개발센터에서는 관내 뷰티기업이 진정 요구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기업과 함께하는 전주시 출연기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오뷰티개발센터는 올해 마케팅 및 R&D 역량을 집중해 하반기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인재용기자

## 전주보건소, 휴가철 맞아 감염병 예방수칙 당부

### 철저한 손씻기·모기 물리지 않기·안전한 음식물 섭취

전주시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는 오염된 식수나 비위생적인 음식물 섭취로 인한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과 모기매개감염병 등 각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철저한 손 씻기와 모기물리지 않기,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식수나 비위생적 음식물 섭취 등으로 전파되는 살모넬라증과 병원성대장균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으로 주로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복통과 구토 등의 소화기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 손 씻기와 안전한 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풀숲에 들어가거나 피부를 노출한 채로 농작업이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또는 쯤쯤가무시증이 발생할 수 있다.

모기에 물릴 경우에는 말라리아와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일본뇌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은 여행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확인하고, 주요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여행자 주의사항과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발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인근시 공화합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보건소(063-281-6341~2)로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아중저수지 20대 여성 사망

전주의 아중저수지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 41분께 전주시 우이동 아중저수지에서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익사체가 산책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경찰과 119 구조대원이 출동해 익사체를 건져내 수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17일 오후에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임실 시외버스 차고지 화재

전북 임실의 한 시외버스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버스 6대가 불에 탔다.

17일 오전 3시 3분께 임실군 임실을 갈마리에 있는 시외버스차고지에서 불이나 30여분만에 진화했다. /이상민기자

## 상반기 체납세 190억원 징수세입 청신호

### 전주시, 특별징수기간 운영·고액체납 전담징수팀 강력징수 효과 톡톡

전주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9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체계적인 세입목표 관리와 체납분석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기화하고, 체납규모에 따른 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한 종합적인 세정운영 성과로 풀이된다.

전주시는 지난 4월과 5월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체납정리 목표를 부여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과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변호관영치 등 본격적인 징수체제로 돌입, 총 9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팀이 체납자료를 이관 받아 철저한 현황조사와 실익분석을 기초로 밀착징수를 추진했으며,

은내재산 조사와 명단공개, 출구금지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끈질긴 현장징수를 통해 체납세 18억원을 받았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재산과 소득규모에 맞는 분납을 권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성실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 '전주시체납관리전문단 체납다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체납다터에는 지방세징수전문가 12명이 고액 세외수입 체납부서 담당자와 1:1 징수 멘토로 결연해 징수역량을

함께 키우고, 세외수입 징수체계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8월~9월, 11월~12월 2회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대법원 공탁금 압류와 등산 압류,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등 보다 전라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징수하고,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지원 등의 우호적인 징수를 추진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시장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제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재용기자

## 전주시, 수도계량기 옥외화상 점검시스템 설치

전주시가 정확하고 공정한 수도요금 점검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달 말까지 정확하고 공정한 수도요금 점검과 점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도 점검이 관련한 지역의 수용가를 대상으로 옥외화상 점검시스템을 설치한다.

옥외화상 점검시스템은 계량기의 옥외 접속장치에 PID를 연결해 영상 촬영한 검침 데이터를 전송하면 맑은물사업본부 요금프로그램에 데이터가 자동 다운로드 되는 검침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도요금 고지가 가능하다.

옥외화상 점검시스템이 설치되는 곳

은 수도 계량기가 철관 주철관시멘트 시설 등 무거운 것으로 덮여 있어 점검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장소, 지하실 창고안주방 등 위치가 부적절한 곳에 설치돼 점검할 수 없는 경우, 도로변 또는 맨홀 침수 등으로 검침이 매우 어려운 곳 등이다.

강창수 전주시 수도행정과장은 "정확한 검침이 공정한 수도요금 부과에 기초가 되므로 수도 검침시 시민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린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도요금 고지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화훼인연합회, 엄마의 밤상 성금 기탁

전주지역 화훼인들이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아침밥을 함께 차리기로 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화훼인연합회는 이날 그랜드힐스 호텔에서 윤기영 회장과 최성완 사무국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밤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밤상 후원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기영 전주화훼인연합회장은 "이번 성금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아침을 굶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화훼인들의 뜻을 한데 모은 것"이라며 "엄마의 밤상 후원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재용 기자

www.jjnh.co.kr

##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호박



미나리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중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운,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 Good 농산물